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시적 산문...“한강은 광주로 흐른다”

한강 작가는

한강은 지난 1970년 11월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과 어머니 임감씨(임)의 딸로 태어났다. 광주 효동초등학교를 다니다 아버지가 문학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상경하면서 한강도 자연스럽게 서울로 갔다.

한강은 서울에서 풍문어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한다. 연세대 국문과 시절 글을 잘 쓰는 학생으로 이미 필명을 날렸다고 한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시적인 문체, 심금을 울리는 섬세한 문장은 한강의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한강은 졸업 후엔 잡지사 '샘터'에서 근무를 하며 틈틈이 창작을 했다.

한강 작가의 문단 데뷔는 시를 통해서였다.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시인으로 먼저 명함을 내밀었다. 이후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붉은 뭇'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영양'을 비롯한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을 펴냈다. 시집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등을 발간했으며 인간의 문제

소설가 한승원 딸...효동초 다녀

시인으로 시작해 소설가 길로

국내 우수 문학상 대거 수상

'채식주의자' 2016년 맨부커상

에 천착하는 작품을 썼다. 특히 죽음과 폭력, 사회적 인 문제 등을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로 형상화해 독자들로부터 "역시 한강"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4년에 펴낸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의 상흔을 섬세한 문체와 감성으로 풀어낸 수작이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의 비극적 역사를 각기 세 여성의 시선으로 묘사한 '작별하지 않는다' (2021년)도 현대사의 비극과 상처를 시적인 문체로 그린 소설로 호평을 받았다.

백지연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소설이 5월 광주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현실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증언하는 자의 소명의식과 듣는 자의 상상력이 치밀하게 어우러지는 간절한 고백의 서사는 잊을 수 없는 '그 도시의 열흘'을 고스란히 되살린다"고 평했다.

한강은 국내 우수의 문학상은 모두 탈 정도로 이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지난10일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5년 제29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씨(왼쪽 두번째)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맨 오른쪽), 어머니 임감오씨, 남편이자 문학평론가이자 교수인 홍용희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문학상을 인정받았다. 만해문학상을 비롯한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한국소설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아울러 한강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2016년 맨부커상 수상(인터내셔널 부문) 등 2개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됐다. 맨

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힐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다.

한강의 작가로서의 소명, 역사의식 등은 이번 노벨상 선정 관련 기자회견이나 '잔치'를 하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

부친인 한승원 소설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잔치는 무슨 잔치'라며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강의 작품을 출간하는 출판사 문학동네와 장비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면들은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한강 작가의 지적 사유의 단면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작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가 무엇을 성찰하고, 사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징한 대목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적·집단적 폭력이 내몬 인간의 비극적 삶 탐구하며 서사화

한강의 작품세계

광주 5·18 항쟁 다룬 '소년이 온다' 동물성·폭력성 초점 '채식주의자' 제주 4·3 소재 '작별하지 않는다' 등 사회적 문제, 서정적 문체로 형상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스웨덴 한림원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한강을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밝힌 선정 이유다. 그 선정 이유에 한강의 문학세계가 집약돼 있다.

한강은 인간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집요하게 탐색해 온 작가다. 특히 국가적, 집단적 폭력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비극으로 내모는지 정치하게 탐구하며 이를 서사화한다.

광주 5·18 민중항쟁의 상처를 다룬 '소년이 온

다', 동물성과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 '채식주의자', 제주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소설들이다.

'소년이 온다'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1980년 당시 참혹하게 짓밟혔던 항쟁 과정,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섬세한 문체로 형상화했다. 작가의 시선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에 닿아 있다.

작품은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한 폭력에 맞서 시위현장으로 나서야 했던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상'을 절절하게 풀어낸다.

스토리는 5·18 당시 시위대 속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다. 동호와 함께 시위대에서 행진을 하던 정대는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죽는다. 중학교도 못 마치고 공장에 들어가 동생 정대를 뒷바라지 하던 누나 정미도 그 봄에 행방 불명된다.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사무관으로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매일같이 합동분향소가 있는 사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열다섯 어린 소년은 시신에서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한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는 열세 살 때 아버지(소설가 한승원)가 보여준 사진첩"이라며 "그 사진첩에는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비록 심대했지만, 당시 그 사진첩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은 어떠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강에게 2016년 맨부커상을 안긴 '채식주의자'는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폭력적이고 관능적인 일면을 서정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그렸다. 평을 받는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영국 인디펜던트 문학선임기자인 보이드 단킨은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수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소설"이라며 "정교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섬세한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보여줬다"는 찬사를 보냈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적인 삶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단절하고, 그로인해 점차 죽음에 다가가는 한 여성을 초점화했다. 해외에서 번역 출간되자마자 인기를 끌 만큼, 주제의 보편성과 문체의 흡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강 노벨상 상금 14억3000만원 비과세

1100만 코로나·메달·증서 수여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53)는 상금 약 14억3000만원(스웨덴 1100만 크로나)을 비과세로 받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단체·기관 및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수령하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의 수상금은 전액 비과세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국세청은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되며,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금은 노벨상 외에도 또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 대상으로 최근 열렸던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및 공단 포상금들도 이에 해당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노벨평화상에 日 평화운동단체 니혼 히단쿄

올해 노벨평화상에 일본의 평화운동단체 니혼 히단쿄(사진)가 선정됐다.

노벨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온 니혼 히단쿄를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단체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

3000만원)가 지급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엠브로스스와 게리 러브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의 기초를 구축한 존 홀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또한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



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존 점퍼(39) 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일 문학상은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지막 올해 노벨상 선정은 14일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 고

(주)서산, (주)성암, (주)성암아스콘 임홍섭 회장님께서

2024년 10월 13일, 향년 96세로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 드립니다.

- 빈 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1분향소)
- 발인일시 : 2024년 10월 15일 오전 8시
- 장 지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산 182-1번지
- 유 족
 - 아들(상주) : 임창곤
 - 딸 : 임명자, 임선애
 - 손자 : 임종학, 임종태, 임종엽, 김승훈, 심승보
 - 손녀 : 임등원, 김유경, 김진경

- 자부 : 김수아, 이미나
- 사위 : 김봉재, 심재남
- 손부 : 김은주
- 손서 : 하상윤, 박창선, 장정도

※ 고인의 유지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주)서산 (주)성암 (주)성암아스콘 임직원 일동

고조대부고 2024 조대부고인 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4. 10. 20(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봉규